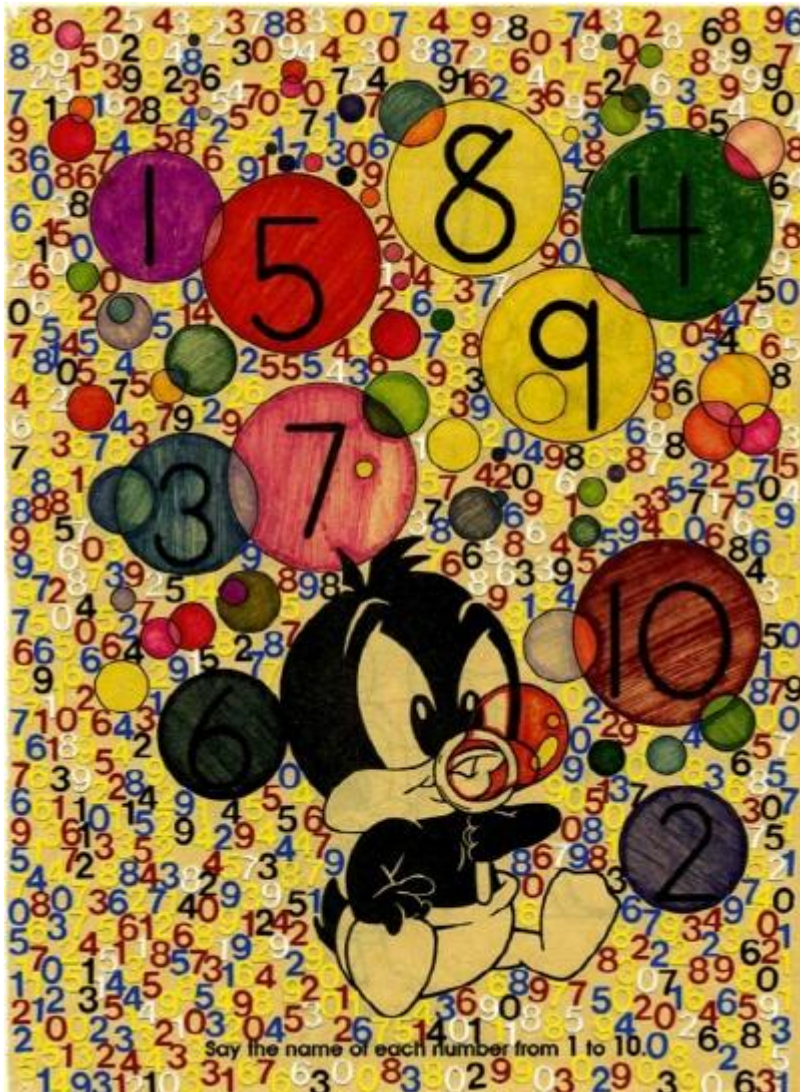


[오늘의 전시]두산갤러리, 박미나 '드로잉展'

30 일~9 월 27 일까지, 15 년간 작업한 드로잉 785 점 선보여...

머니투데이 [이연주 기자](#) | 2012.08.27 09:48



↑'1 to 10' 1998, 색지 위에 자체접착비닐과 펜, 33x25.5 cm ©두산갤러리

서울 종로에 위치한 두산갤러리 서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박미나 작가(39)의 '드로잉(Drawings) 1998-2012' 전시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199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15년 동안 작가가 작업한 785점의 드로잉 작품 중 3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 작가는 회화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도전을 통해 새로운 읽기 방식을 연구하고, 회화의 영역을 확장했다. 색상을 수집·조사·연구한 결과를 통해 자신만의 색채 체계를 수립하여 표현한다. 특히 철자의 위치를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아나그램'이나 컴퓨터의 특수 이미지 문자인 '딩벳'을 이용한 회화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드로잉 연작은 일정한 규칙과 체계를 갖춘 어린이 학습용 놀이인 '색칠공부'를 이용한 독특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어린이용 색칠 공부 도안에 기존의

지시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과장된 색깔로 채색을 하는 등 섬세한 자신만의 회화로 변형시킨다.

2010 년 제 1 회 두산 연강예술상 수상작가인 박 작가는 미국 로드아일랜드 미술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헌터대학교 대학원 회화과를 마쳤다. 두산갤러리 뉴욕과 갤러리 엠, 국제갤러리,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다방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고, 201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삼성미술관 플라토, 아트 스페이스 풀, 백남준 아트센터 등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의 오프닝 리셉션은 오는 30 일 오후 6 시이며, 관람은 다음달 27 일까지 할 수 있다. (02)708-5050



↑ 'Triangle' 2000, 색지에 잉크젯 프린트, 33x25.5cm ©두산갤러리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2082708263333640&type=1>